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s under the Credit-Based Curriculum: Focusing on Protestant Christian Schools

Jongchul Lee^{1*}, Taehong Yun²

¹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²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troduced alongside the 202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o propose measures (alternative strategies) to revitalize religious education.

[Contents]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eligion-related subjects in Korea's curriculum, focusing on the shift from "Religious Studies" to "Life and Religion." It also analyzes survey data from 2016, 2018, and 2023 to examine pre-reform conditions. Furthermore, an emergency survey was conducted among high schools to examine chaplaincy office operations, the number of religious education class hours, changes in chaplaincy staffing and instructional hour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o explore the challeng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revitalizing religious education.

[Conclusions] As a result, At the school level, a strong commitment to preserving the school's identity and founding mission, along with creative efforts, is essential. If religious education through formal subjects faces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more concretely consider and design a "total curriculum" that integrates both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pproaches.

[Key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Christian Schools, Religious Educatio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Corresponding author** Jongchul Lee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mail : jc207@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학교(개신교)를 중심으로

이종철¹, 윤태홍²

¹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객원교수

²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실태분석)을 검토하고,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대안모색)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종교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해방 이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 교육과정 속 종교 교과와 교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의 전환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고, 기존 실태조사 자료(2016, 2018, 2023년)의 비교를 통해 고교학점제 이전까지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목실 운영, 종교 수업 시수, 고교학점제 이후 교목실 총인원과 종교 수업 시수 변화,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대안을 검토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학교의 중핵 교육과정(건학이념 과목)을 필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합기구 차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만들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통할 창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려는 의지와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를 통한 종교교육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교과-비교과의 토탈 커리큘럼’ 구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교학점제, 기독교학교, 종교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I. 서론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첫 번째 해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늘 혼란스럽고, 적응의 시간이 요구된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에는 정책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실제 의도했던 결과를 내놓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종교’ 교과는 그 교과명이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 전환되었다.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의 교과명 변경은 ‘종교교육계’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할 만했다. ‘학’을 떼고, ‘삶’을 넣자는 ‘종교교육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교과명의 변경은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과정의 목표나 구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방된 변화가 실제적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삶과 종교」 교육과정은 분명 「종교학」 교육과정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도입된 ‘고교학점제’ 정책은 또 다른 변수였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 학생이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 목표다. 이전에도 선택과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학교가 사전에 학생 수요를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짜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설계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방된 목표의 실제적 구현이 문제가 되겠지만, 의도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 구성권’이 ‘국가’에서 ‘학생’으로 상당히 옮겨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종교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도 교양 과목군에 있는 과목들과 ‘복수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더 전면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년제’가 ‘학기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학년 단위’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는 줄어들고, 과목당 수업시수는 늘어나며, 1년에 배우는 과목 수의 총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1) 2021년 7월 31일, 가톨릭학교교육포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전국교법사단, 종교평화원의 공동주최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열렸지만, 3개 종교의 핵심 학자들과 현장가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이 ‘종교학’ 교육과정으로 설정되면서,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학’을 떼고, ‘삶’을 넣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1: 3-26).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해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교 교과’가 포함된 교양 교과군에 있는 과목들은 1학기 동안 3학점에서 1학점 증감 가능(2~4학점)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2~3학년에서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선택하기 위해, 선수과목이 되는 ‘필수 과목’들이 1학년에 대부분 배정되면서, 1학년에 ‘종교’ 과목을 교과로 배치하기는 어려워지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교육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삶과 종교」로의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기대는 사그라들고, ‘고교학점제’ 정책이 가져올 종교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²⁾.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2024년까지의 종교교육’과 ‘2025년 이후의 종교교육’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시수 확보를 위한 교과 간 쟁탈전 양상 속에, ‘종교교육 시수는 축소’되고, ‘기간제나 강사로 활동하던 종교 교사는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다.

2025년 1학기가 시작되고,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첫 번째 고교학점제 학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종교교육 축소’ 현상은 사실인가? 실제로 ‘종교교육’은 축소되었는가? (2)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실태분석)과 과제(대안모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역량과 정보의 한계에 따라, 기독교학교(개신교)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II. 교육과정 변천과 종교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종교교육 실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 변천과 종교교육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롭게 진행되던 종교계 사학의 ‘종파 교육(특정 종파의 교리와 가치관에 기반한 신앙 형성 교육)’은, ‘평준화 제도의 도입’(1974년)과 ‘종교 교과의 국가 교육과정 포함 과정’(1981년), 그리고 학교 내 종교 자유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강의석 군 사건’(2004~2010년) 등을 거치면서, 점차

2) 2024년 2월 7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관으로, ‘고교학점제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의미 있게 여기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은 주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이 ‘종교 과목 운영 위축’, ‘교목실 기능 약화’, ‘종교 교사 축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종교교육을 심화할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는데, ‘건학이념 과목의 1학점 필수 개설’과 ‘다양한 종교 관련 고시 외 과목 개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4: 3-81).

‘종교학 교육’(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으로 바뀌어 왔다. ‘특수성에 기반한 종교교육’에서 ‘보편성에 기반한 종교교육’으로 바뀌어 온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 교과가 사실상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만 개설되고 있다는 현실과도 맞지 않았다. 종교교육의 ‘특수성’을 없애고, ‘보편성’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학교 현장에서 수용되지 못하였고, 이후로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연구와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다(Lee, 2023: 45-47). 「삶과 종교」 교육과정의 등장은 이러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 종파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과

해방 이후부터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 2. - 1981. 12.)까지 종교 교과는 종립학교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종교교육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신앙교육이었으며, 종립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등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개신교 학교들은 매주 기도회, 성경 수업,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종교 수업 교재는 학교별로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출판된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Park, 2013: 37-38).

그러나 19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준화 제도는 종립학교의 정체성에 입각한 신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평준화 제도는 기존의 사립학교들이 갖고 있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던 학교 선택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국가와 종립학교 간, 학교와 학부모 간,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 되었다. 평준화 제도는 점차 사립학교들을 ‘준 공립학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종립학교들은 평준화 이후에도 그동안 해오던 신앙교육을 지속하였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종교교육으로서의 종교 교과

제3차 교육과정까지 종립학교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종교 교과는, 제4차 교육과정(1981. 12 - 1987. 3)부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과 함께 자유 선택 교과 가운데 하나로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필수 선택과목이 되었다. 종교 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Park, 2013: 39).

이러한 흐름은 제7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졌는데, 이전보다 더 ‘교양교육’이 강조된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 과목 목표는 첫째,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중

교과 성립하는 것', 둘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셋째,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01: 129).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내용은 ① 인간과 종교, ② 종교현상의 이해, ③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④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⑤ 세계의 종교와 문화, ⑥ 한국의 종교와 문화, ⑦ 종교 공동체의 이해, 그리고 ⑧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등으로 구성되었다(Hong, 2009: 15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 내용은 '신앙 교육적' 성격에서 벗어나 '종교학적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이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종파 교육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은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를 더욱 종파 교육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당시 강의석 군은 학교 채플의 의무적 참여에 반대하면서,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였고, 이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등학교 교양 교과 과목명에 '생활'이 첨가되어, '생활과 논리', '생활과 철학',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였던 종교 교과목 명칭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과 종교'로 바뀌게 되었다(Kim, 2023B: 24).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의 목표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신앙심 확충'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성숙한 인격의 배양'으로 대체되었다(Ko, 2016: 6). '신앙'이란 단어가 국가교육과정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에 종교 교과가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합법적으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는 있었지만, 종교 교과가 점차 종교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종파(신앙) 교육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상실 또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Park, 2013: 41).

3. 종교학 교육 시기

2011년 재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생활과 종교'라는 명칭 대신 '종교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도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종교학'적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시기만 하더라도 종교교육에 있어서 종립학교의 현실을 인정하고 종교학적인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고안하려고 노력했었으나, 종교학 교육 시기가 되면서 다양한 종교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Park, 2013: 42).

종교학 교육과정의 연구 책임자였던 고병철은 종교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상 '교양 교과군'의

자리에 속해 있으며, 교양교육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성찰’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성찰’이 없으면 강제로 주입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적 기구인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 2021: 17-18).

‘종파 교육’에서 ‘종교교육’으로, 그리고 ‘종교학 교육’으로의 종교 교육과정의 변천은 특정 종교의 신앙을 중시하는 교육에서부터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특정 종교의 이념에 기초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종교교육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은 종교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종교의 가치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가능성이 남아있었지만, ‘종교학 시기’에는 신앙적 요소가 포함될 여지를 주지 않게 되었다(Park, 2013: 44).

종교학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학 교육을 통한 타 종교 이해가 필요하다.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종교학 교육은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교양 과목의 한 과목으로서 ‘종교학’을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국, 공립학교에서 개설한다면, 특히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는 단순히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는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상의 공식 과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Park, 2013: 45).

실제로 ‘종교학’ 교육과정을 따라 개발된 유일한 인정도서였던 「종교학」 교과서는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단 13개 종교계 학교에서만 사용되거나 사용이 검토되었을 뿐이고, 종교계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단 한 곳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검토되었다(Sohn, 2020: 25). 김남희도 종립학교들의 종교교육 실태 연구를 통해, ‘종교학’으로의 종교 교과 변화가 종립학교들의 정체성 약화를 가속화시켰음을 주장했다. 종교교육 정책과 교과서가 현장에 적합하게 제시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종교교육 위축 및 왜곡 현상을 드러냈다(Kim, 2011: 44-61). 현장과 맞지 않는 형태의 ‘종교학 교육과정’은 그 의도의 어폐함과 상관없이, 현장의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Lee, 2023: 44).

4.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삶과 종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그 과목명이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 변경되었다. 2015 교육과정이 종교 교과를 보다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종교 교과가 학생들의 삶에 더 가깝고 실용성이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Kim, 2023A: 3).

「삶과 종교」는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관점 위에서, (1)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 문화에 미쳐온 영향을 알고, (2)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며, (3)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도록,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뢰’, ‘포용’, ‘상호 존중’ 등, 종교적 가치이면서, 시민 사회의 가치이기도 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삶과 종교」를 통해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지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Kim, 2023B: 29).

이에 대해 고병철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큰 틀에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5 과정의 핵심이 ‘성찰’이 아닌 ‘객관적 지식 위주의 종교교육’인 것처럼 폄하하고 왜곡하면서, ‘종교로부터의 배움’을 지향한 2022 종교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Ko, 2023: 5).

그러나 두 교육과정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그 핵심 키워드가 ‘비판적 성찰 능력’(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 기르기)에서, ‘지혜로운 시민’(삶을 풍요롭게 하는 종교적 지혜 기르기)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보다,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삶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Lee, 2023: 44).

한편 「삶과 종교」는 여전히 ‘교양 교과’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종교 교과가 종교계 학교에서만 개설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교육과정에서는 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종립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공립학교에서도 「삶과 종교」가 선택되어 가르쳐지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종교교육과 관련한 규제적 상황과 인식들이 극복되기를 바란다. 종교교육에 대한 소극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종교 안에 축적된 그리고 인류 문화유산 안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Kim, 2023B: 30-31).

Ⅲ. “종교교육” 실태 분석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실태와 관련된 개신교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들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주목할만한 조사들이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16년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로, 전체 기독교학교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15

년 9~11월). 두 번째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의 요청을 받아, 2018년에 시행한 연구로, 연합회 소속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18년 10~11월). 세 번째는, 2023년에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백석대가 진행한 연구로(조사기간 2022년 11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실태조사 파트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종교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인교목회의 협조를 얻어, 소속 개신교 종립사학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25년 3월 27일~4월 11일)³⁾. 조사에 응해준 학교는 그 중 17개 고등학교였다.

<표 1> 종교교육 실태조사 연구

<Table 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2016년 연구 (2015년 조사)	2018년 연구	2023년 연구 (2022년 조사)	2025년 연구
연구 의뢰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의 첫 자체 실태조사	기독교학교 연합회 요청, 소속 학교 실태조사	사학미션+백석대 요청, 기독교사립학교 신앙교육 실태조사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의 긴급 간이 조사
연구주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 특징	첫 실태조사	연합회 회원학교들의 실태조사	신앙교육에 집중	교목회의 협조
대상 학교수	314개교	131개교	333개교	-
실태조사 응답 학교수	총 65개 (고 43개)	총 51개 (고 29개)	총 65개 (고 38개)	(고 17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개정이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상에서 ‘종교 교과’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수과목이 아닌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종교 과목은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종교교육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 형태로 교과목 개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한 교과목으로는 한 학기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양 교과인 「삶과 종교」로는 한 학기에 2학점 정도(3학점에 1학점 증감 가능)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계 학교들이 그간 해오던 종교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Lee, 2023: 54).

3) 네 번의 연구가 모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각 연구마다의 그 대상과 특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설문 문항과 내용은 큰 흐름에서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교목실 인원’과 ‘종교 수업 시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1. 교목실 인원

먼저 기존 연구에서 학교당 평균 교목실 인원은 2016년 연구에서 1.56명, 2018년 연구에서 2.58명이었으며, 2023년 연구에서는 2.25명(초 1.43명, 중 1.85명, 고 2.61명)이었다.

<표 2> 교목실 인원
<Table 2> Personnel of the Chaplain's Office

	무응답 (0명 추정)	1명	2명	3명	4명 이상	합계
2016년 연구 (연구소 자체) 평균 1.56명	7개교	34개교	13개교	4개교	7개교	65개교
	10.8%	52.3%	20.0%	6.2%	10.8%	100.0%
	83.1%			17.0%		
2018년 연구 (기독교학교연합회) 평균 2.58명	1개교	16개교	14개교	7개교	13개교	51개교
	2.0%	31.4%	27.5%	13.7%	25.5%	100.0%
	60.9%			39.2%		
2023년 연구 (사학미션+백석대) 평균 2.25명	3개교	23개교	14개교	13개교	12개교	65개교
	4.6%	35.4%	21.5%	20.0%	18.5%	100.0%
	61.5%			38.5%		

<표 3>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교목실 인원 변동
<Table 3> Changes in the Number of Chaplaincy Staff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학교 수	비율
교목실 인원 변동 없음	14	82.3%
교목실 인원 증가	1	5.9%
교목실 인원 축소	2	11.8%
총 응답수	17	10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2024년까지) 교목실 총 인원수	1	5	2.35명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2025년부터) 교목실 총 인원수	1	5	2.32명

교목실 인원에 대한 이번 17개교의 응답 결과는 고교학점제 이전 2.35명에서 이후 2.32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17개교 중 14개교(82.3%)에서는 변화가 없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교목실 인원이 축소된 학교는 2개교로 응답 학교의 11.8%였고, 오히려 교목실 인원이 증가한 학교도 1개교 있었다.

2. 종교 수업 시수

종교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2016년 연구에서 3개 학년에서 모두 하는 학교의 비율이 48.9%로 가장 많고, 2개 학년에서 하는 비율은 42.2%, 1개

<표 4> 종교수업 편성

<Table 4> Scheduling of Religious Classes

	편성되지 않음	1학년만	2학년만	1,2 학년만	1,3 학년만	1,2,3 학년 모두	기타	합계
2016년 연구 (연구소 자체)	-	4개교	0개교	15개교	4개교	22개교	-	45개교
		8.9%	0.0%	33.3%	8.9%	48.9%		100.0%
		8.9%		42.4%		48.9%		
2018년 연구 (기독교학교연합회)	-	3개교	1개교	3개교	2개교	25개교	-	34개교
		8.8%	2.9%	8.8%	5.9%	73.5%		100.0%
		11.7%		14.7%		73.5%		
	편성되지 않음	1개 학년만		2개 학년에서		모든 학년에서	기타	합계
2023년 연구 (사학미션+백석대)	4개교	11개교		14개교		31개교	5개교	65개교
	6.2%	16.9%		21.5%		47.7%	7.7%	100.0%

2023년 연구	주당 종교 수업시수					계
	편성되지 않음	1개 학년만 1차시 편성	2개 학년에서 1차시씩 편성	모든 학년에서 1차시씩 편성	기타	
초	1	0	0	4	2	7
	14.3%	0.0%	0.0%	57.1%	28.6	100.0%
중	0	2	5	12	1	20
	0.0%	10.0%	25.0%	60.0%	5.0%	100.0%
고	3	9	9	15	2	38
	7.9%	23.7%	23.7%	39.5%	5.3%	100.0%
계	4	11	14	31	5	65
	6.2%	16.9%	21.5%	47.7%	7.7%	100.0%

학년에서만 하는 비율은 8.9%였다. 2018년 연구에서도 3개 학년에서 모두 하는 학교의 비율이 73.5%로 가장 많고, 2개 학년에서 하는 비율은 14.7%, 1개 학년에서만 하는 비율은 11.7%였다. 2023년 연구에서도 모든 학년에서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초 57.1%, 중 60.0%, 고 39.5%), 2개 학년에서가 21.5%, 1개 학년에서만이 16.9%였다. 2023년 연구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다는 학교도 있었고, 기타 응답 중 일부는 학년당 1차시 이상으로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3개 연구 모두 모든 학년에서 1차시 정도를 운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응답학교에 한한 것이겠지만, 종교 수업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점차,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2개 학년만, 1개 학년만 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균 수업 시수를 계산하면, 2016년 연구는 평균 4.8시수, 2018년 연구는 평균 5.24시수, 2023년 연구는 평균 4.4시수(중 5.1시수, 고 4.0시수)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번 17개교의 응답 결과 종교 수업 시수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 3.93시수에서, 도입 이후 4.25시수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응답한 17개교가 종교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종교 수업 학기 수와 시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면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정규 교과 수업으로는 주당 1시간씩 하던 것을 2시간 할 수밖에 없어진 새로운 체제 때문에, 종교 수업 시수를 오히려 늘리는 학교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지는 더 지켜볼 문제다.

<표 5>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종교 수업 시수 변동

<Table 5> Changes in Religious Class Hour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학교 수	비율
종교 수업 시수 그대로	11	68.75%
종교 수업 시수 증가	4	25.0%
종교 수업 시수 축소	1	6.25%
총 응답수	16	10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2024년까지) 종교 수업 시수	0	6	3.93시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2025년부터) 종교 수업 시수	2	8	4.25시수

3.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대안

이번 2025년 긴급 간이 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주관식 질문을 통해, 종교교육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와 그 대안에 관해 물었다. 이를 시대적 차원, 정책적 차원, 연합기구 차원, 학교 차원, 교사 차원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학기제 편성’, 그리고 ‘복수 개설’과 ‘선택’의 구조가 매 학기 1학점씩 필수로 교육하길 원하는 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복수 개설 후 선택이 아

<표 6> 종교수업 활성화에 있어 어려움과 그 대안
<Table 6> Difficulties in Revitalizing Religious Classes and Their Solutions

	어려움	대안
1) 정책적 차원	• 정책의 변화로 인한 기독교 학교 정체성 위기 • 고교학점제 실시 • 학기제 편성으로 인한 문제 • 복수 개설 • 학기에 1학점씩 필수과목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육과정 구조	• 복수 선택이 아닌 학교 지정과목으로 3년을 수업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양과목 1학점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종교수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확립 • 복수 편성 극복 • 선택권부여 단수개설 • 사립학교의 자율 확보
2) 연합기구 차원	• 정부/교육청에 어필(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교육 연합 차원의 일원화된 창구 부족 • 학급수 감축으로 현 교목이 퇴직 후 새로운 교목을 뽑기 힘들고, 전임 한 사람 또는 계약직 교목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움.	• 전체 기독교 사학의 연합 및 대응 • 연합기구의 활성화, 현장 소통, 정책적 지원. • 정책에 대한 교단의 강력한 지원 필요. • 교회들(교단)의 지원으로 교목 파송 인원을 늘려야 함.
3) 학교 차원	• 민원 • 학교가 민원이나 감사를 너무 무서워함. • 관리자의 의지 부족, • 종교와 종교 관련 수업에 대한 관심도 부족	• 건학이념(설립정신)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 • 제도 제한이 있고 대안을 찾기 힘들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종교 수업을 유지하려는 인식과 노력. • 학교의 정체성 유지와 교장, 교목의 열정. • 학교가 분명한 신앙교육의 의지를 가져야 하며, 타 과목 교사와 교육과정 편성 때부터 원활한 협의 필요함.
4) 교사 차원	• 수업콘텐츠 구상의 어려움	• 수업 콘텐츠 지원 • 교사의 역량 증진

닌 학교 지정과목으로 3년(6학기)간 1학점씩 편성 가능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연합기구 차원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에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족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전체 기독교 사학들의 연합과, 지원 단체들의 활성화와 연합, 그리고 지원 기구와 현장의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해, 현 교목 퇴직 후 새로운 교목을 뽑는 일이 쉽지 않고, 전임 한 사람이나 계약직 교목으로만은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교회와 교단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목 파송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학교 차원에서는 민원이 생기는 것과, 민원과 감사를 두려워하는 학교, 종교와 종교 수업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관리자의 의지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 정신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종교교육 시간 확보를 위한 타 교과 교사들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교사 차원에서는 수업 콘텐츠 구성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지원과, 교사 역량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IV. 결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 1학기를 맞이하면서, 본 연구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새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영향에 따른 기독교학교(개신교) ‘종교교육 축소’ 현상은 사실인가? 실제로 ‘종교교육’은 축소되었는가? (2)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 국가 교육과정 ‘종교 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상의 ‘종교 교과’는 역사적으로 ‘종파 교육 시기’에서 ‘종교교육 시기’로, ‘종교교육 시기’에서 ‘종교학 교육 시기’로 갔다가, 다시 「삶과 종교」 교육과정 도입으로 ‘종교교육 시기’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⁴⁾. 표방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비판적 성찰’을 강조 하던 「종교학」과는 달리,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 지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 교육과정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2022 교육과정에서의 종교 교과 방향성 변화’가 ‘고교학점제의 운영방식(학기제 중심의 학생 선택)’과 정책 상충⁵⁾ 현상(Policy Conflict)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되고 있었다.

4)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에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5)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이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되어 목표 달성이 방해받는 상황

교목회의 협조를 얻어, 그간의 기독교학교(개신교) 종교교육 실태조사 연구(2016년 연구, 2018년 연구, 2023년 연구)를 통해 본 종교교육의 현실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종교교육의 실태(2025년 간이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종교교육에 열심히 있는 17개 고등학교의 사례라는 한계가 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종교 수업 시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종교 수업 시수가 약간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다(3.93시수 → 4.25시수). 조사에 응한 학교들이 종교교육에 의지를 가진 학교들이어서, 기존의 종교 수업 학기 수와 시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하면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정규 교과 수업을 주당 1시간씩에서 2시간으로 증가시키면서, 종교 수업 시수가 오히려 늘어난 학교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장 교목들과의 전문가협의회(FGI) 모임에서는 “아직 정책 도입 첫 번째 해라서, 학교의 방침을 동료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들도 따르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종교교육의 위축은 이미 다른 학교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교목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매 학기(6학기) 1차시 정도씩을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학교의 중핵 교육과정(건학이념 과목)을 필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하는 방식을 버리고, ‘국가 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학교 단위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학생이 직접 개설하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교육과정 결정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도 ‘필수’와 ‘선택’이 있듯이, 학교 단위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과를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그 학교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 핵심 과목이므로, 종교계 사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학교장 재량 과목(필수, 단위 선택)’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Lee, 2023: 55-56).

연합기구 차원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만들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매 학기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하에, 고교학점제 상에서는 6개의 교과목이 필요하다. ‘고1’ 혹은 ‘고2’에 「삶과 종교」를 가르치고, ‘고2’와 ‘고3’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연계되는 형태의 종교 교과를 ‘고시 외 교과’의 ‘신설 과목’으로 개설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교과 개설이라면, ‘기독교와 예술’, ‘종교개혁과 유럽’, ‘불교와 철학’, ‘천주교와 영성’ 등 좀 더 개별적인 종교명이 들어가는 교과로도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보편적인 수업으로 개설하고 싶다면 ‘종교와 역사’, ‘종교와 철학’, ‘종교와 문학’, ‘종교와 환경’ 등의 형태로 교과를 개설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2, 3학년이 입시에 가까운 학년

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대학 진로와 연계한 형태의 교과를 개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Lee, 2023: 54).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통할 창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사학들을 지원하고 있는 연맹체(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와 지역교회와 교단, 그리고 지원 기구들(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의 연합과 연대, 역할 조율 등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를 통한 종교교육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교과-비교과의 토탈 커리큘럼’ 구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독교대안 학교들이 교내에 부설 연구소를 두고, 전체 교육과정 연구 및 조율 및 교사 교육 등을 총괄하는 것처럼, 교목실이 학교의 ‘기독교교육 연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 고등학교 종교교육만 다루고, 초등학교 종교교육과 중학교 종교교육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각 학교급에 따라 종교교육에 관한 상황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별 종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도 추후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달라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를 사실상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인식하면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의 자유’까지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새로운 사립 학교 체제와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 정책이 필요하다(Lee, 2023: 44).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사실 교양 과목 중 하나가 아니다. 그 학교의 건학 정신을 구현하는 ‘중핵 교육과정’이다. 새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상황에서도 종교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Kim, N. H.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Catholic Textbooks in Concordance with Glocal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43-64.
- Kim, E. Y. (2023A). Prospects and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Subject of <Religion in Human Life>: Focusing on Teachers' Autonomy and Experti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4, 1-16.
- Kim, K. Y. (2023B).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19-40.
- Hong, E. S. (2009). An Examination on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Religiou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in a Democratic Socie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153-183.
- Ko, B. C. (2016). The Revision Hist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Studies) and 2015 Religious Studies Cour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30.
- Ko, B. C. (2021). The plac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ligious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6, 15-30.
- Ko, B. C. (2023). ‘Inventing’ Religion and Pseudo-religion in the 2022 National Curriculum on Religions.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6, 1-32.
- Lee, J. C. (2023). Changes in Religious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Polic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3, 41-60.
- Park, S. J. (2013). Problems of the ‘Science of Religion’ Curriculum as Based on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35-63.
- Sohn, W. Y. (2020). A Critical Study on “Religious Studies” Textbook of Protestant School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Pea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21-40.
-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01). *High School Curriculum Commentary: Liberal Arts*.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6).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주최) “한국 기독교학교 진단과 개선 방향” 세미나 자료집 (2016. 5. 26).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16). “*Diagnosi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Korean Christian Schools*” *Semina Proceedings*. (2016. 5. 26).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8). (기독교학교연합회 의뢰) “기독교학교 실태조사 연구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 보고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18). “*Study on the Status Survey of Christian Schools - Focusing on Schools Affiliated with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 Korea*” Research Report.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 세미나 자료집 (2021. 7. 31).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1). “*2022 Revised Curriculum and Religious*

- Education - Questions about 'Religious Studies' Curriculum" Semina Proceedings. (2021. 7. 31).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23).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백석대 공동주최) “기독교학교(초, 중, 고) 신앙교육 실태 및 인식조사” 세미나 자료집 (2023. 2. 18).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3). “*Survey on the Status Survey and Perceptions of Faith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emina Proceedings. (2023. 2. 18).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24). “고교학점제와 기독교학교의 대응” 대토론회 자료집 (2024. 2. 7).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2024).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Response of Christian Schools*” *Conference Proceedings. (2024. 2. 7).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